

第 1 日 (9月 13日)

開 會

예정된 오전 10시 정각에 심창유 문교부차관을 비롯한 내외의 귀빈이 입장함으로써 동 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최식은 전국 각처에서 약 700여명의 도서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식순에 따라 성대히 거행되었다.

特別講演

“韓國의 近代社會와 文化遺産”이란 主題를 가지고 嶺南大學校 總長 李瑄根 博士의 特別講演이 50분동안 있었다.

主題講演

特別講演에 이어서 “情報의 活用과 國家發展”이란 主題를 가지고 韓國科學技術研究所長 韓相準 博士의 主題講演이 있었다.

레크리에이션 및 파티

3시 40분부터는 歡迎音樂會가 始作되었는데 大邱國民學校 學生들의 管絃樂 演奏와 신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야금독주 및 무용에 이어 啓明大學 音樂科 學生들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5시10분까지 進行되었다. 또한 6시부터는 경북교육위원회 김주만 교육감이 베푸는 리셉션이 달성공원에서 있었다.

第 2 日 (9月 14日)

各分科別 主題發表 및 討議

第2日제인 14日에는 各分科別로 주어진 主題에 대한 發表와 協議가 있었으며 아울러 當面問題에 대한 討議를 午前中에 모두 마쳤다. 따라서 分科別 進行狀況은 다음과 같다.



(특별강연을 하는 이선근 박사)



(개회사를 대독하는 강중구 박사)

○ 公共圖書館分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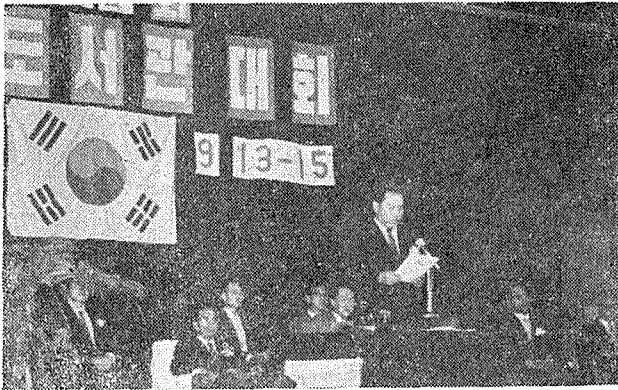
公共圖書館分科會議는 大學院 2층(201호)실에서 5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圖書館의 立場에서 본 讀者의 읽을 權利” (金榮朝: 서울特別市立鍾路圖書館)와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國家發展을 위한 公共圖書館의 政策(李承周: 國立中央圖書館)의 두 主題가 發表되었으며 뒤이어 同 發表된 主題에 대한 眞摯한 討論이 있었다.

○ 大學圖書館分科

大學圖書館分科는 100餘名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大學院 2층(세미나실)에서 會議를 갖았다. 먼저 弘益大學校 圖書館의 한상완 씨가 國家發展을 위한 大學教育改革과 大學圖書館의 役割을 中心으로 한 “大學教育改革과 大學圖書館의 相關關係에 관한 研究”란 題目으로 9時10분부터 10時까지 發表하였다. 10分間 休息한 後에 서라벌藝術大學 圖書館의 崔成眞 館長이 “大學圖書館資料處理의 機械化”-오늘 우리에게도 必要한가-라는 題目으로 10時20분부터 11時10분까지 發表하였으며 繼續하여 두 主題發表에 대한 質疑應答 및 討論이 있었다.

○ 學校圖書館分科

學校圖書館分科는 約 200餘名의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大講堂에서 9時30분부터 開催되었는데 먼저 中央視聽覺教育院의 趙載厚씨의 “教科書 改編에 따르는 圖書館 利用指導 問題”-공부하는 方法은 어디서, 언제, 누가 지도하려는가-라는 主題로 10時20분까지 發表되었다. 10分間 休息을 한 뒤에 10時30분부터는 서울教育大學의 崔成洛씨의 “새로운 학교도서관 개념으로서의 미디어 센터”란 主題로 11時20분까지 發表하였다. 따라서 두 主題에 대한 討議를 가졌고 뒤이어 지난 第10回大會 때 設立을 決議하였던 本協會 산하 學校圖書館部會 創立會議를 가졌다. [同 會議에서는 全文 第25條附則으로 된 部會規程을 審議採擇하였으며 새로운



(축사를 하는 김주만 교육감)

任員을 選出하였는데 會長에는 徐章錫 京畿高等學校長이 選出되었고 副會長에는 朴敬源 釜山女子高等學校長과 崔渡喆 群山綜合高等學校長이 各各 選出되었다. 其外 10名의 理事와 2名의 監事를 選出하였다.

○ 特殊圖書館分科

特殊圖書館分科는 14個館 21名이 參席한 가운데 大學院 2층(207호실)에서 열렸다. 먼저 輸出情報센터 資料室의 金容伯씨가 “特殊圖書館의 相互協力問題”란 主題에 대하여 發表하였으며 다음에 “定期刊行物 및 逐次刊行物의 機械的 處理 및 統制”란 主題로 韓國科學技術研究所 圖書室長 朴啓弘씨의 發表가 있었다. 따라서 發表된 두 主題를 中心으로 ① 特殊圖書館의 藏書 亡失處理問題, ② 藏書蒐集의 協同 分擔問題, ③ 圖書館 相互貸借制度問題, ④ 綜合目錄의 作成問題, ⑤ 新刊情報의 入手問題 등에 대하여 眞摯한 討議가 進行되었다.

分科別 報告 및 綜合討議

各分科別 主題發表 및 討議에 이어 午後에는 全體會議을 갖고 綜合討議가 있었다. 綜合討議에 임하기 前에 會議을 進行할 臨時議長을 滿場一致로 崔渡喆 校長을 推戴하였다. 뒤이어 臨時議長(崔渡喆)의 주제로 各分科別會議에 대한 報告가 있었는데 同報告에서는 다음과 같은 事項들이 建議案件으로 報告되었다.

○ 公共圖書館分科(報告: 金榮朝)

① 地方公務員任用令에도 司書職種을 挿入하여 全國各地方 公共圖書館이 專門職을 確保토록 할 것. ② 建議하는 問題들을 보다 効果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 社會의 著名人士에게 顧問을 委囑하여 協助를 要請하도록 할 것.

○ 大學圖書館分科(報告: 崔成眞)

放送通信大學生들이 自己들의 居住地에서 必要한 圖書館資料를 入手하여 工夫할 수 있도록 全國圖書館이 寬大한 措置를 취하는 決議를 하는 한편 本大會에서 採擇되는 建議에는 이를 반드시 實現시킬 수 있도록 內容을 具體化시키고 繼續的인 노력을 傾注할 것.

○ 學校圖書館分科(報告: 趙載厚)

建議事項은 새로 構成된 學校圖書館部會 理事會에 委任키로 하되 圖書館 利用指導時間確保, 司書教師의 教務分掌上의 位置, 學生用 圖書購入費 確保問題 등을 建議事項에 반드시 包含시키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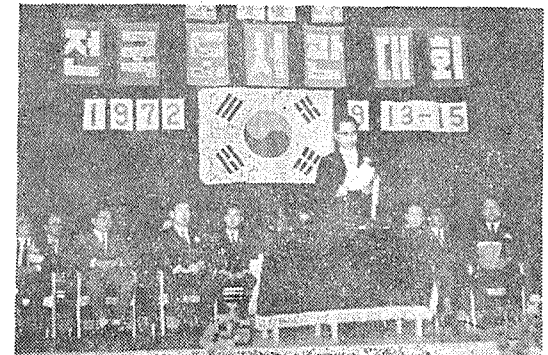
○ 特殊圖書館分科(報告: 朴啓弘)

① 特殊圖書館部會를 構成할 것. ② 現在 國立·國會等 15個 圖書館을 中心으로 實施運營되고 있는 相互貸借制度를 보다 많은 도서관이 參與할 수 있도록 門戶를 開放할 것. ③ 圖協에서는 新刊資料에 대한 Information을 會員圖書館에 提供할 수 있는 方案을 謀索해 줄 것.

議長(崔渡喆) 이제까지 各分科別(館種別)會議에 대한 報告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全體討議 時間입니다.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宗會(國防科學研究所 圖書室) 各級 圖書館으로 오는 國內外 郵便物이 간혹 잘못 配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바른 住所로 配達될 수 있도록 會員 여러 분이 積極 協助해 주시기를 付託드립니다. 그리고 來年度 大會부터는 參加費制를 實施해서 主管處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알찬 大會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尹惠昇(嶺南大學校 圖書館) 金宗會 先生의 意見을 全幅的으로 贊成하면서 補充發言을 하였습니다. 이젠



(관영사를 하는 이규이 대구시장)

회의록

大會의 規模도 많이 커졌고 主管하는 데서는 힘에 겹도록 애를 쓰는데도 會員들에게는 그리 만족할만하게 惠澤을 드리지 못하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參加費를 받도록 하되 그 額數나 方法等 여러 가지 具體的인 問題들은 理事會에서 잘 研究 檢討하여 내년 總會에서 正식으로 決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 長(崔渡喆) 여러 분이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大會 參加費制에 대한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박수로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동 박수로 異議없이 通過시키다—

議 長(崔渡喆)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成洛(서울教育大學) 大會의 性格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會員들이 一年에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建議나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大會보다 보다 學究的이고 우리의 進路를 새롭게 謀索하는 眞摯한 大會로 그 性格을 改善했으면 좋겠습니다.

申學均(國立中央圖書館) 우리가 每年 建議를 하는데 建議된 問題들이 거의 實現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要求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方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卽 社會의 영향력있는 著名人士를 諮問委員이나 혹은 顧問으로 推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要求를 貫徹시키는데 積極 應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啓弘(韓國科學技術研究所 圖書室)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서관대회가 우리의 當面한 課題를 보다 더 眞摯하게 研究 檢討하는 態度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大會의 性格을 改善하는 具體的인 方案으로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大會

計劃을 圖書館의 機能別로 보다 더 깊이 있고 具體的이고, 보다 많은 사람이 參與(館種別 구별없이) 해서 연구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프로그램에 神經을 좀 더 쬐서 관계된 主題를 系列化하여 體系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卽 會員들이 館種에 區別없이 主題別 關心에 따라 자유롭게 討議에 참가하고 여러 館種의 會員들이 유대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서경모(公州教育大學 圖書館) 先 大會의 名稱부터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대회라는 것보다 “전국도서관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민병대(경남고등학교) 저는 大會에 처음 참석해서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보다 수확이 적었습니다. 大會에 참석한 會員들이 자기 圖書館에 돌아가서 業務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짧고 꽤기 있는 一線 司書들이 용기와 信念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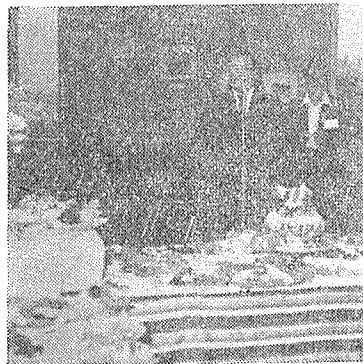
崔成洛(서울教育大學) 아까 제가 大會의 性格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意見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專門化時代 혹은 急變하는 時代에 우리 圖書館이 어떻게 對處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問題를 研究, 檢討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問題를 보다 더 眞摯하고 專門的으로 研究할 수 있는 特別機構를 構成했으면 합니다. 卽 도서관계 委員會(가칭) 같은 機構를 설치하여 大會의 새로운 方向도 提示하고 圖書館의 進路의 開拓을 도모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尹惠昇(嶺南大學校 圖書館) 그러한 問題는 現在 圖協內에 있는 專門委員會나 理事會에서 能히 研究 檢討

(31면에 계속)



(대회장인 계명대학 정문에 세운 아취)



(리셉션을 주계한 김주만교육감의 인사)



(환영회에서 의고전무용)

校正中 10月15日 發刊豫定.

6. “도협월보” 發行

毎月 1,700部 發行 9月號까지 總 15,300部 製作하여 會員圖書館에 配件 完了.

會 長(姜周鎭) 事業報告에 대해서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다음은 讀書週間行事計劃案 審議로 들어가겠습니다.

金仁遠(事業部長) 配付된 油印物에 의하여 상세히 說明報告하다.

會 長(姜周鎭) 讀書週間行事計劃에 대해서는 別異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全員 異議없이 原案대로 通過시키다—

會 長(姜周鎭) 大端히 手苦하셨읍니다. 오늘 會議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사 무 국 일 지

- 8월 23일 사무국장 경제기획원 방문
- 8월 28~29일 사무국장 대구출장
- 9월 1일 제3회 행정분과위원회
- 9월 9일 사무국장 문교부 방문
- 9월 13~15일 제11회 전국도서관대회
- 18일 사무국장 국회 방문
- 23일 제3회 상무이사회
- 26일 사무국장 MBC-TV 방문
- 28일 독서주간기념강연회
- 10월 4일 제4회 편집분과위원회

☆ 신착참고문헌 ☆

○ New Zealand Libraries(1970. 4. 6) A.L.A.

-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vol. XXVI No. 3 1972. 5. 8)
- Das Schweizer Buch(A. 12, 13, 14) B. 3
- American libraries (1972. 7. 8) A.L.A.
- Canadian Library Journal (Vol. 29. No. 4. 1972. 7-8) C.L.A.
- T.L.A. Bulletin (Vol. 16. No. 2. 1972. (3-4))
- びぶるす(Vol. 23. No. 5, 6, 7. 1972) 國立國會圖書館
- 親 和(223, 224) 社團法人日韓新和會
- 圖書館雜誌(Vol. 66. No. 8.) 社團法人日本圖書館協會
- 문헌정보(1972. 7. 31)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Vol. 27. No. 8. 1972) 국립중앙도서관

☆ 배부의뢰 도서목록 ☆

| | | |
|---------------|-------|----------|
| 새마을운동 | 168부 | 대한공론사 |
| 경제논집(제11권1호) | 166부 | 한국경제연구소 |
| 지방행정(7월) | 40부 | 대한지방행정협회 |
| 교통경제(8월) | 70부 | 교통공론사 |
| 한양대학교요람 | 150부 | 한양대도서관 |
| 공군지(130호) | 62부 | 공군중앙 |
| 동국대학교논문집(10집) | 100부 | 동국대학교 |
| 교통안정 | 130부 | 교통안전협회 |
| 에어리뷰(제38호) | 77부 | 공군중앙 |
| 지방행정(8월) | 40부 | 대한지방행정협회 |
| 인간들 | 100부 | 윤호영 |
| 인간으로 돌아가라 | 100// | // |
| 교통경제 | 70부 | 교통공론사 |

11면에서 계속

할 수 있으며 별도의 機構를 만들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議 長(崔渡喆) 여러 분께서 좋은 意見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의 意見을 綜合해 보면 圖書館大會를 形式的인 年例行事와 같은 印象을 脫皮하고 學究的이고 알차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改善하자는 것이고 아울러 變遷하는 時代에 適應하여 도서관의 進路를 찾고 우리의 當面한 問題가 隨時로 研究 檢討될 수 있는 常設委員會를 設置하자는 意見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意見은 대회의 性格을 改善하는 것은 좋으나 常設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은 反對한다는 것입니다. 即 現在 圖協에 理事會나 專門委員會가 있는데 별도로 委員會를 設置할 必要가 없다는 意見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充分한 意見交換이 된 것으로 알고 可否를 물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나중

의견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可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滿場一致로 贊成 通過되다—

議 長(崔渡喆) 司會者로서 한가지 意見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會議의 결실을 整理하고 關係機關에 보낼 建議事項에 대해서는 館種別 綜合報告한 4분과 事務局에 일임해서 作成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滿場一致로 贊成 通過되다—

議 長(崔渡喆) 여러분 連일 手苦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맡은 소임이 이것으로 끝난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아실줄 압니다만 우리 館界가 무엇을 要求하는가를 먼저 알아서 그런 方向으로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이끌어 주실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